

지역 소식통



김제경찰서, 제6기 시민경찰학교 수료식

김제경찰서(서장 김영복)는 지난 20일 경찰서 2층 우소홀에서 시민경찰 제6기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시민경찰학교 수료식을 열었다.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은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봉사에 열정이 있는 주민들 중 희망자를 선발해 지난 18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3일간 하루 4시간씩 현장 견학, 심폐소생술 및 일상생활 건강교육, 보이스피싱 및 교통안전교육 등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교육생 대표 문모씨는 "경찰 경찰을 이해하고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좋은 기회로 경찰에 업무를 배울수 있어 좋았고, 일상으로 돌아가 김제경찰의 치안파트너로서 치안활동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복 서장은 "지역 치안봉사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교육생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김제경찰의 치안파트너로 활발한 민경 협력치안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낙석위험

소양면 모래재 전면통제

완주군이 낙석이 우려되는 소양면 모래재구간을 신속하게 전면 통제했다.

완주군은 20일 소양면 모래재 구간 낙석위험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암반상부에 결착이 있는 바위가 낙석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모래재 구간을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다.

군은 곧바로 우회도로를 지정(국도26호선)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양방향 진입구간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차량 통행을 금지했다.

또한 현장을 긴급 점검한 뒤 낙석위험성이 있는 바위를 제거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낙석방지망 설치와 안전시설물 보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지방부장

금구면 복지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봉사

김제시 금구면(면장 두일군) 복지공동체(대장 권혁윤)는 21일 금구면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대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1세대에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집 내부에 곰팡이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에 불편사항이 많았던 집으로 실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어르신께서는 "그동안 정돈되지 않은 집이라 많이 불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서 집안 이곳저곳을 손봐주시고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권혁윤 복지공동체장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방문했을 때 정돈되지 않은 집안 곳곳이 마음에 쓰였었다. 도배와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해진 집을 보니 뿌듯하다"라고 밝혔다.

두일군 금구면장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는 복지공동체가 있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10월 5~9일 개최 김제지평선축제

‘바가지 요금은 없다’

김제시, 축제 기본계획 보고회

음식가격 1만원 이하 제한·표준가격제 운영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착한 축제’ 기준 제시 5개 분야 56개 프로그램 확정... 김제만의 멋 선배

김제시는 지난 20일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벽골제 일원에 개최되는 지평선축제에 변화된 관객 수요를 반영한 5개 분야 56개 프로그램을 확정해 김제만의 멋과 맛, 재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억제돼 있던 여행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속에 수많은 지역축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한민국 대표 명예축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경문화 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행사장 공간구성과 주요 프로그램의 변경 추진하여 확대 등 기존과 다른 모습으로 축제의 매력을 한껏 더할 계획이다.

주요 변화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음식가격 1만

원 이하 제한, 표준가격제 운영,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K-바가지 없는 축제로 개최할 예정이며 친환경 축제 실천을 위해 종이 인쇄물 축소, 일회용품 사용 제한, 친환경 제품 확대를 통해 착한 축제의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축제 운영 부분에서는 벽골제 중심으로 체험 및 참여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시내권 무대공연과 거리축제 등을 통해 축제 운영을 이원화하고 공간구성 부분에서는 벽골제 행사장에 청년 깔깔마당, 지평선 에코존 생태숲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하고 지평선 가든스퀘어와 만남의 광장 조성 등 행사장 공간 재구성을 통해 관광객의 재미와 편의를 더할 예정이다.

더불어 축제의 재미를 더할 신규프

로그램으로 벽골제 짚신퍼레이드, LED 쥐불놀이, 비고을 농경올림픽, 비고을 농경 VR체험, 짚공차기 풋살대회, 비고을 사금체험, 지평선 농업드론대회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그 밖에도 벽골제 햇불퍼레이드, 벽골제 전설쌍용놀이, 풍년기원 입석출다리기, 지평선 농특산물 퍼포먼스 등 축제를 대표하는 핵심 프로그램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변화를 줄 계획이다.

그 밖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축제 기획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 깔깔마당을 운영해 먹거리를 체험, 문화공연, 프리마켓 등 김제만의 다양한 색깔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수많은 지역축제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행태에 머물러 우리 축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새로운 창의정신으로 축제에 과감한 변화를 주어야 할 때이다. 달라진 지평선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이 김제에 머물며 아름다운 추억과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남녀노소 누구나 불편함 없이 축제를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 타당성 논의

김제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정성주 시장 양운업 행정경제위원장, 이정자 시의원, 전라북도 관광산업과장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역 보고에 이어, 전문가 의견수렴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으며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 규모, 타당성 등 세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은 김제시 시내권 일원에 총사업비 197억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김제시에서는 앞으로 공영재건축사업, 지방재정투자사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신항만,



김제시는 지난 2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철도 등 기반 시설 개통 시 새만금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사전 대비가 조속히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와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방문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국가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북을 제2의 관광강국인 '새만금' 품은 문화예술 관광지대로 지정하고 전북의 한옥, 한식, 한복 등 전통문화 테마로 관광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듣·보·잡으로 취업 잡았다’

(듣고 보고 잡자)

완주지역 미자립 청년 취업고민 해소하고자 마련

행사 참여 4명 대상 현장면접... 2명 채용 확정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완주고용안정성제대응센터가 미자립 청년들의 취업고민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듣보잡(듣고 보고 잡자)' 행사가 연일 화제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들보잡 행사는 7명의 잡프로(멘토)와 11명의 청년(멘티)이 직업에 관한 리얼한 경험담과 정보 등을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관내기업 인사담당자가 4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고, 최근 2명의 채용을 확정했다.

현장면접 이후 2차 면접을 앞두고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해당 청년의 최종합격을 견인하고자 개별 면접 컨설팅과 동행면접 등을 진행했다. /지방부장

김제시 '청소년 태권도 국가대표' 전지훈련 유치

김제시가 한국 청소년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했다. 청소년 태권도 국가대표팀 54명(선수 48, 지도자 6)은 7월 18일부터 8월 6일간 김제국민체육센터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하계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선수단 체류비용 및 차량 지원, 관광 지원 등 지역상권과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 제도를 구비하고, 전지훈련 유치를 중심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추

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표팀은 전지훈련 기간 동안 김제시타투어버스를 통해 관내 역사 문화 체험 관광 투어도 함께 진행할 계획에 있어,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에게 김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다.

김제시는 이번 전지훈련 후에도 오는 8월에는 끝나무 태권도 국가대표와 경희대 태권도팀의 전지훈련 유치가 확정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지속적인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곽노태 기자

최종합격 2명은 오는 8월 7일 입사를 앞두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해당기업 인사담당자는 "통상적 면접전형시 구직자의 표준화되고 포장된 일부정보만으로 채용에 직장생활 부적응 등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칭으로 이직율이 높게 문제였다"며 "행사를 통해 구직자의 기본자세와 함께 내면의 중심과 진솔함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고, 실제 채용까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완주고용안정성제대응센터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법과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의 교육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부장

김경열 청소년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은 "김제시의 적극적인 전지훈련 유치 노력과 전국 각지에서 선수단이 입소하기 편리한 교통 인프라에 반해 김제를 전지훈련지로 결정했다"라고 밝히면서 "김제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훌륭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대표팀 훈련성과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소년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김제시 방문을 환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체육형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난 21일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은 완주교육지원청 정책협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장미옥 교육장을 비롯해 양 기관 교육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복합시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복합시설 조성 '맞손'

완주군, 완주교육지원청과 교육부 공모사업 대응 MOU

완주군이 인구소멸예방과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 선제적 대응을 위해 완주교육지원청과 손을 맞잡았다.

지난 21일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은 완주교육지원청 정책협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장미옥 교육장을 비롯해 양 기관 교육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복합시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아동청소년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을 교육부와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 복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복합화 사

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자료, 정보 등 상호공유 △사업시행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을 협력한다.

군과 교육지원청은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에 힘을 모으고, 향후 설치운영을 통해 다양한 돌봄,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생들의 교육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완주군 특성에 맞는 학교복합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미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학교복합시설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부장

유희태 완주군수, 수해 복구 현장 점검

'2차 장마 대비 수해복구 집중'

유희태 완주군수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2차 장마에 대비한 수해복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유 군수는 심례을 딸기 농장과 비봉면 고산면의 하천 복구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심례을 딸기 농가는 현재 전북지방경찰청의 지원으로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봉면은 자율방재단과 군부대가 힘을 보태고 있다. 고산면은 군 자체 인력을 투입 중이다.

유 군수는 복구 작업을 위해 힘을 보태 준 경찰과 자율방재단, 군 강병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며 "폭염에도 불구하고, 내 일처럼 나서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완주군에는 총 432건, 총 58억1,800만원 규모의 피해액이 접수됐다.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225건, 33억1,300만원, 농경지, 주택, 등 사유시설은 207건, 25억500만원이다. 현재 공공시설 복구율은 40%를 보이고 있다.

'김제시민 독서감상문' 오늘부터 신청접수

초등·중고등부·일반부 등

김제시도서관은 시민들의 독서 의욕 고취 및 독서 생활화 책 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1회 김제시민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24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초등학생(4~6학년) 이상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초등부(4~6학년), 중·고등부, 일반부 등 총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부문별로 선정된 도서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선정도서는 1차로 담당 사서가 선정 도서 목록을 선정하고 2차로 온·오프라인 김제시민 투표를 통해 부문별로 2권씩 최종 도서를 선정했다. 선정된 도서는 총 6권으로 △초등부 '단복빙을 나갔습니다'(신은영, 소원나무, 2022)', '긴긴밤(우리, 문화공예, 2021)' △중·고등부 '순례주머니(유은실, 비룡소, 2021)', '다이스(단오, 창비, 2021)' △일반부 '불편한편의점(김



고 있다. 군은 기상청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장마가 주말을 기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구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20일부터 관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어 복구 작업 중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늘막을 제공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유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부서와 읍면, 관계기관의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다른 장마에 민민의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부장

호연, 나무옆의자, 2021~2022', '어서 오세요, 휴남동서점입니다(황보름 클레이하우스, 2022)'이다.

공모 양식은 한글파일과 자필 작성(원고지) 모두 가능하며, 초등부(A4 1장 이상, 원고지 5매 이상), 중·고등부(A4 2장 이상, 원고지 7매 이상), 일반부(A4 2장 이상, 원고지 10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1명씩 총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김제시장을 수여하며, 9월 중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 처음 진행되는 제1회 김제시민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독서 생활화 및 독서와 글쓰기의 즐거움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